

제6실 | 서예 | 일본의 옛 경전 전시해설

N-10 칭찬정토불접수경

이 경전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것으로 극락정토의 부처와 보살 그리고 국토의 뛰어난 점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쿠마라지바(구마라집)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의 다른 번역본입니다. 황마지 9장을 이어 붙여 해서체로 필사하였고, 8세기 무렵 사경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N-14 불명경

『불명경』이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부처들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외워둘 것을 설파하는 경전입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에는 천 개의 부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하여 1141년에 류케이라는 승려가 스승 린코대사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명복을 빌며 불명회라는 법회를 개최하고 이 경전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실 | 염 직 | 옥 대 조각과 다양한 기법의 염 직 품

이번 염 직 전시에서는 쇼무 천황의 유품으로 전해져 오는 옥 대 조각을 중심으로 매듭과 능직, 평직 비단, 전과 같이 다양한 기법의 염 직 품을 전시합니다. 직조 기술과 염색한 색깔의 차이 등을 통해 고대 염 직의 풍부한 세계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N-49 옥 대 조각

[중요문화재] 나라시대 8세기

다채로운 색실을 짠 색에서 옅은 색으로 단계적으로 흐리게 배열하여 격자무늬를 표현한 허리띠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양한 색의 유리구슬과 진주를 실에 끼워 직조를 한 점입니다. 이것은 쇼소인 보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높은 신분의 인물이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N-50-1 산 모양무늬 매듭 번두

[중요문화재]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깃발인 번의 조각입니다. 번의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번두는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색실을 사용하여 산 모양무늬를 표현했습니다. 산 모양무늬는 황실 소장품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 초상〉 속 태자의 허리띠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I-336-3a 갈색 바탕 나비무늬 그림 평직 비단 ‘도인’ 명문

갈색의 평직 비단 바탕에 먹으로 그림을 그린 비단의 조각입니다. 날개를 펼친 나비를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렸습니다. ‘도인’ (호류지 도인가람 안의 유메도노 건물)이라는 목서가 있으며 가운데 접힌 흔적으로부터 원래는 허리띠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336-4 황색 바탕 작은 원 꽃무늬를 금과 은으로 찍어낸 나(羅)

나라시대 8세기

비스듬한 격자무늬를 세밀하게 직조한 나(황색 바탕 격자무늬 나)에 금분과 은분을 사용하여 작은 원 형태의 여섯 잎 꽃무늬를 찍어 표현했습니다. 조각만이 남아있지만 귀여운 인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I-336-87 여러 색 가로줄무늬 비단

나라시대 8세기

가는 가로줄무늬의 띠와 언뜻 보기에 가스리무늬(흐릿하거나 붓으로 그은 것 같은 무늬)처럼 보이는 줄무늬를 번갈아 가며 표현한 비단 조각입니다. 날실은 꽤 가늘며 씨실과는 다른 두 가지 색의 모쿠이트(실을 꼬아서 하나의 실로 만든 것)가 사용되었습니다. 중앙에 접힌 자국이 남아 있으며, 현납 보물 중에서는 같은 종류의 직물을 번의 테두리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I-336-93 줄무늬 바탕 용무늬 자수

아스카시대 7세기

평직 비단에 색실을 사용해 가로로 구분하고 용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체의 용이 네 발로 서있는 모습에서 고훈시대의 금속 공예 작품의 무늬와의 유사성을 보이며 유명한 작품인 천수국 자수 휘장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I-336-102 부처를 수놓은 비단

아스카시대 7세기

씨실과 날실 모두 강하게 꼬아 직조한 시지라 직물에 천인과 보주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천의 앞뒷면에 동일한 자수가 수놓아지는 쓰기바리누이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호류지 현납 보물의 광동번, 혹은 금동 작은 번의 번죽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I-336-108 흰색 바탕 꽃무늬 전

나라시대 8세기

전이란 양모를 압축시켜 만든 깔개를 지칭하며 오늘날의 펠트와 같습니다. 이 작품은 흰색 바탕의 전에 남색과 옅은 남색, 빨간색과 옅은 빨간색으로 염색한 전을 끼워 넣어 꽃무늬를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꽃 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쇼고인에서는 여러 종류의 작품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호류지에는 이 작품만이 전해져 와 매우 귀중한 작품입니다.

N-319-14 평직 비단, 능직 번죽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번신의 하단 가장자리와 네 줄의 번죽의 조각입니다. 그중 한 줄에만 연속된 구슬 무늬를 표현한 적자색의 능직 비단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평직 비단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색을 의식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남겨진 조각을 통해 매우 화려했던 원래의 모습을 상

상하실 수 있습니다.

N-319-34 평직 비단 변 조각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번두 및 번신의 하단과 번족이 달려 있었던 부분이 남아있는 평직 비단 변 조각입니다. 특히 황색의 번은 <명과번>이라고 불리며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공양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능직 비단의 번족

N-319-47-2 황색 바탕 산 모양무늬 능직 비단 번족 조각

N-319-115 황색 바탕 변형 바둑판무늬 능직 비단 번족 조각

N-319-117-1 적색 바탕 바둑판무늬 능직 비단 번족 조각

모두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호류지에 전해져 오는 번에는 능직 비단이라는 비단을 사용한 예가 많이 발견됩니다. 능직 비단이란 교차하는 날실과 씨실이 다른 방향의 실을 일정한 규칙으로 건너뛰어 무늬를 표현하는 직물을 말합니다. 호류지의 능직 비단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산 모양무늬와 마름모꼴 안 마름모꼴 격자무늬와 같은 기하학적 무늬에서 포도 넝쿨무늬와 봉황무늬와 같은 구상적 무늬로 변화했으며 이 변화에 맞춰 무늬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색의 직물 같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직 비단의 번족

N-319-51-2 감색 바탕 평직 비단 번족 조각

N-319-52-2 옅은 남색 바탕 평직 비단 번족 조각

모두 아스카~나라시대 7~8세기

평직 비단은 날실과 씨실의 실을 한 가닥씩 순서대로 교차하는 가장 단순한 직물로 번족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공양을 목적으로 제작한 <명과번>에는 황색의 번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그 외의 불교 의식에서 당내를 장식하는 번에는 다양한 색상의 번을 사용합니다. 감색, 적색, 황색, 녹색, 자색의 오색이 기본이며 염색하는 방식에 따라 농담이 달라져 다양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염색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